

사람 사람 사람!



칸 영화제 ‘감독상’ 받은 영화감독 임권택

“영화... 이제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글 김명환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임권택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30분, 제55회 칸 국제영화제 시상식이 열린 프랑스 칸의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취화선(醉畵仙)>의 임권택(林權澤) 감독(65)이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된 순간은 한국 영화사 100년에 기록될 역사적 순간이었다.

결에 있던 임 감독의 부인 채령 씨를 비롯하여, 제작자인 이태원 태흥영화사 사장, 정일성 촬영감독, 출연배우 최민식, 안성기 씨 등은 눈시울이 붉어져 서로 포옹했다. 감독은 단상에 올라가 1,600여 명의 전세계 영화계 VIP 앞에서 “이 상은 남북한을 통틀어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은 우리 문화사의 쾌거이기도 하다. 올해 2,281편의 영화가 물린 칸 영화제에서 단 22편만이

본선 경쟁 부문에 초대됐고, 그 중에서도 한국화가 장승업의 삶과 예술을 그려낸 우리 영화 <취화선>이 감독상을 받은 것이다. 임 감독은 지난 6월 21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도 추천됐다.

필자는 칸에서 돌아온 임권택 감독을 지난 6월 14일 만나 세 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칸 시상식장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을 말할 때에 비하면 감독의 표정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특히 눈길을 붙든 것은 임 감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였다. 199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임 감독을 계속 취재했던 필자도 임 감독이 담배 피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젊은 날 피우다가 나이 들어 기침이 나와 끊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임 감독은 2년 전부터 담배를 다시 피운다는 것이었다. 영원한 파트너인 정일성 촬영감독(74)이 “뭘 담배까지 끊느냐. 혼자 살아남으려 그러느냐”고 술자리에서 꼬드겨 10년간이나 참아온 담배를 다시 입에 물게 됐다고 감독은 말했다. 정일성 촬영감독은 “작품할 때마다 피로운 일 잊어버리라고 피우라고 했던 거지”라고 받았다.

그리고 보니 임 감독이 금연한 1990년대 10여 년간이 임 감독에게는 종전의 영화세계에서 진일보하여 거장으로 거듭나려는 기간이었다면 다시 담배를 집어든 건 이번 수상작 <취화선>을 준비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취화선>을 만들 때의 그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다.

임 감독은 “워낙 쫓기니깐 담배를 피우게 되죠. <취화선> 땐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웠어요. 시나리오라는 기본 틀은 해놓고 찍지만 정해진 틀로부터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영화가 모두 끝날 때까지, 녹음 끝날 때까지 감독은 늘 쫓기는 거요.”



사람 사람 사람!

많은 사람들은 칸 영화제 수상도 기쁜 일이지만 임 감독이 그간 꾸준히 매달려온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작업의 절정에서 내놓은 〈취화선〉으로 받았다는 것도 뜻깊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서구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의 수준과 한국화의 세계를 함께 느끼게 해준 셈인데요. 장승업의 삶을 영화 소재로 택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그간 〈아제아제 바라아제〉 〈만다라〉에서 〈서편제〉에 이르는 작품을 하면서 나는 결국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서나 문화적 개성들을 영화로 창작해 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국제 무대에서도 성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서편제〉 〈춘향전〉을 하면서 나로선 바닥을 친 거 아니에요. 다 해먹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한국화가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어요. 사실 1975년 무렵인가부터 장승업 선생 이야기를 듣고 무척 관심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불려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같은 것을 들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요. 그러나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인데 가뜩이나 '찍히고 있는' 감독인 내가 그런 영화를 또 할 자신이 없어서 덮어버리고 있었죠.

한때는 단원 김홍도를 다룰까도 했었어요. 그런데 파고들다 보니 '김홍도는 과연 내가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화가인가'라는 어려움과 부딪쳤어요. 도무지 그분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된 순간은 한국 영화사 100년에 기록될 역사적 순간이었다. 제작자인 이태원 태흥영화사 사장, 정일성 촬영감독, 출연배우 최민식, 안성기 씨 등은 눈시울이 붉어져 서로 포옹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안성기, 임권택 감독, 최민식)

그렇다면 장승업은 뭔가 임권택 감독님과 만나는 점이 많은 인물이었다는 말씀이겠군요. 장승업이 고아처럼 자라, 뒤늦게 화가로 꽃 피운 점도 임 감독 개인사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들 합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장승업은 2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50대까지 지속했습니다. 나도 20대에 영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밀려나지 않고 영화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이 나이 40을 넘겨 결혼한 것이나 술꾼으로서 유명한 것, 미인을 곁에 두고 작업을 한 것 등도 나와 같다면 같은 것이니까….

그런 외형적인 유사점뿐만이 아니에요. 장승업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그분도 작가로서 저와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화가나 영화감독이나 창조적인 세계를 해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과제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승업이 늘 거듭나려고 하지 않았으면 50 몇 세까지 그렇게 유명한 조선의 화가로 남지 못했을 것이고, 거듭나려는 치열한 몸부림에 관해선 영화감독인 나도 체험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떤 영화의 주인공보다도 <취화선>은 ‘인간이 살아 있는’ 작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 칸 영화제 상을 받던 폐막식날 파티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나를 찾아와 “금년에 칸에 온 영화 중 가장 아름다웠다” “완벽하다” 라고 찬사를 말하고 갔어요. <춘향전> 때도 칸에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그런 찬사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취화선>이 아주 잘된 영화라는 말은 아니고요.(웃음)

이번 영화는 임 감독님이 만든 98번째의 영화죠. 스스로 보기에 그 많은 영화 중 최고의 작품이라 여기는지요.

내 영화 중 베스트가 어떤 작품이다라고 내가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내가 찍은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이라서 이모저모 따져가며 작품의 우열을 가릴 입장이 아니에요. 일반 공개 직전 기술 시사회 때도 중간에 나오는 일이 많죠. 한 서너 번 보고 나면 안 봐요.

왜 자신의 작품을 잘 안 보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필름을 보다보면 그야말로 속이 상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 대목은 좀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겨우 저런 모양으로 찍어냈는가’ 하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혀요. 참 그야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내가 스스로 만족할 작품은 찍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래도 <취화선>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무척 공을 들인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한국화 작가들을 비롯해서 워낙 많은 쪽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줬고 내 스스로도 그간의 어느 작품에 비해 열성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취화선>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임권택 영화 중에서 가장 ‘자전적’인 작품 같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뭐라 할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장승업의 인생과 스스로 닮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인지 감독 스스로의 이야기를 천재화가 장승업을 빗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사람 사람 사람!

그래요. 그건 사실일 거예요. 장승업은 내가 만들었던 어떤 영화의 인물보다도 그 인물 안으로 나 자신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가령 <연산일기>나 <개벽> 같은 영화를 찍을 땐 도무지 연산군이나 최시형이란 인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화불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 빛어내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애초부터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 인간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리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화가로 살면서 도리없이 만나는 이야기로 가야 할지. 그런데 장승업의 삶에 관해서는 기록도 별로 많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찾기 힘들다보니, 애초부터 드라마틱하게 생애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장승업이 화가로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잡아내자고 결론을 내렸죠. 어릴 때부터 산수화에서 인물까지 어느 것 하나 못 그리는 것이 없는 천재였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없거나 천출(賤出)이어서 문자 향(文字香)이 없다는 비판에 괴로워했던 예술가, 그래서 술과 흥취로 지탱해 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림에 정진해 결국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해 냈던 사람이라고 봤어요. 이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 시대 화가들의 행적에 관해 자료를 찾고, 현재 생존해 계신 한국화 원로들을 인터뷰하면서 해낸 거예요.

장승업이 천재였다고 말들 하지만, 거리의 소년이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장승업에겐 혹독한 수련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붓을 어떻게 쓰는지, 사물을 어떻게 볼지, 치열한 훈련 과정이 있었을 테고, '최고' 소리를 듣는 순간 또 그걸 뛰어넘으려는 욕망과 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마치 장승업의 예술세계에 홀린 듯했다면서요.

일본의 오구리 고헤이 감독도 뭔가 씩은 듯 만든 영화는 잘되더라고 그러더군요. <취화선> 찍을 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느껴졌어요. 한번은 서울대에서 장승업 세미나를 하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하루 먼저 갔어요. 시간만 낭비했다 생각했는데 그때 잘못 알고 갔다가 만난 대학원생이 영화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도와줬어요. 영종도 공항 가는 길 뺄발에선 우리만 볼 수 있는 기막힌 색깔과 상태를 만났어요. 장승업의 녀이 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오싹해지기도 했으니까요.

영화 <취화선>엔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장승업의 산수 그림이 화면에 등장하고,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감독이 손잡고 찍어낸 영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채우며 이리저리 무리지어 날아가는 대목, 허무연 빛으로 햇빛을 되쏘는 진흙 개펄들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산수화' 같습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그림과 감독의 영상은 아주 많이 닮아 있으면서 묘한 융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과 그림을 융화시키셨는지요.

앞서 만든 <춘향전>은 우리 소리와 영상을 조화시키면서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번 <취화선>은 개개의 그림과 장승업이 화가로서 완성돼 가는 과정을 빠른 진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지요. 영

화 전체가 한 폭의 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취화선〉 마지막에서 장승업은 어느 도자기 굽는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장승업은 1897년 소리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다 한다”는 자막으로 끝나지요. 결말을 왜 그렇게 심오한 미스터리로 처리하셨는지요?

실제로 장승업은 1897년 52세의 나이로 행방불명됩니다. 세인들은 “금강산에 들어가 신선이 됐다”고도 했죠. 그는 조선시대 4대 화가로 꼽히기까지 평생을 화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말년엔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갈등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예술가라면 삶의 마무리도 또 다른 미적 세계를 창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본 것이지요. 아마 그는 늘 거듭나려는, 새로워지려는 번뇌를 가졌을 거예요.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예술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번뇌하십니까.

나도 벌써 영화감독 40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작품세계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영화감독 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난, 장승업보다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성원해 줬으니까요.

영화 〈취화선〉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가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선 몇 가지 비판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영화 속에 한국화의 미학과 화론(畵論)에서부터 ‘예술이란 이런 것’ ‘그림이란 이런 것’이라며 관객을 가르치려는 듯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흠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한국인들은 한국화가 무엇을 지향하는 그림인지에 대해서는 서양화만큼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난 한국화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관객도 그 예술의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심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한복 같은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어떻게 그림과 아울러 기품 있게 찍어낼 수가 있는가가 나의 과제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장승업 생애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전부 심어내 보려 했던 영화거든요. 통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이라도 이런 예술가가 이런 세계를 지향했다는 것을 어슴푸레하게나마 남겨준다면 그런 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칸에서 영화를 본 서양 사람들도 나의 그런 태도 때문인지 영화 보고 남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동양화에 대해서 깊은 것은 몰라도, 막연하지만 무엇을 왜 그리려 했던 그림인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영화의 대목마다 동학운동이나 천주교 박해 사건 등 당대의 큰 역사적 사건들을 영화 속에 굳이 끌어들이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두들 아는 이야기가 장승업 삶의 고비마다 맞물려서 돌아가니 어색하다는 지적인데요.

화가의 삶을 다룬 영화에 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영화를 부담스럽게 만드느냐 이거겠죠. 그런데 나도 그 대목들은 고민하다가 넣은 부분이에요. 사실 장승업 선생이 살아낸 행적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그분이 그런 사

사람 사람 사람!

건에 연루되었다는 아무런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림을 그려서 팔아먹는 프로로 살다간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절간에서 수도하는 승려들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천민 출신인 장승업 선생을 후원자로 두고 있던 사람들이란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선비도 있었고 모두들 근대를 지향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장승업이 그 시대를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당대의 그 큰 사건들과 장승업을 분리할 수 있나요? 마치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맨날 그림만 그려먹고 살아간 사람처럼 그린다는 게 외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장승업이 그 시대의 큰 사건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은 없지만 큰 사건의 와중을 곁에서 같이 흘러가며 살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조선시대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영화에 같이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리없이 그런 역사적 격변들을 장승업의 삶에 끼워넣으면서 연결을 시켰어요.

또 다 아는 이야기를 일일이 적어서 붙였느냐 하는 말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다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관객 중에 우리 역사에 대해 통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나는 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장승업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흘러왔는지를 영화에서 같이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는 판단했죠. 영화에 시대의 사건을 알리는 자막이 들어간 것조차 시비들이 많았는데, 난 내 그 ‘친절’ 때문에 영화 한 편을 편하게 봤을 사람도 많을 거라고 믿어요. 특히 칸에 가져가 보니까 외국 관객들은 그런 친절하고 설명적인 부분이 이해를 돕는다고 하더군요.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칸 영화제에 도전해 온 게 10년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수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오랜 기간 감독님에게 자리잡고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누구나 영화 하는 사람이라면 칸 영화제를 동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영화제에 욕심일까 그런 것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4년도쯤부터죠. <길소뜸>이 베를린 영화제 본선에 올라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흥공사 측 간부의 소개로 쥘 자콥 칸 영화제 조직위원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무척 거만하다고 느꼈어요. 속으로 나는 ‘내 참 더러워서... 내가 칸 영화제에 출품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낭트 영화제에서 내 회고전이 열려 참석하러 프랑스를 가는 길에 프랑스의 피에르 리시앙이란 분이 파리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이 이번에 쥘 자콥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첫 만남 때의 개운치 않은 인상이 남아 있어 내키지 않았지만 하도 권유해서 만났죠. 그랬더니 자콥이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반가워해요. 아마 내 영화에 대한 평판을 들었던 게 아닌가 해요. 그는 “다른 영화제에 당신이 영화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영화를 칸에 출품해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내가 찍고 있던 건 <장군의 아들>인데 이걸 출품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서편제>를 보냈죠. 이게 칸에 필름을 보낸 나의 첫 영화죠. 그런데 아무 선정도 되지 못하고 외면을 당한 거예요. 기분이 상해 속이 끓었죠. 그 뒤 또 <축제>를 보냈는데 비경쟁 부문인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태원 사장이나 나나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하고 출품하지 않았죠.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쌓여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세월 기대하시던 상을 받으니까 흥가분하십니까.

그럼요. 정말 흥가분해졌어요. 상을 꿈꾸던 세월이 너무 길었고 기대하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상을 받고 보니 수상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도 우선 ‘아,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네요. 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황금종려상마저 타보겠다고 힘주고 있으면, 잘못하다가 힘든 영화만 나올 거 같구. 이제 좀 편안하게 영화를 만들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때 옆에 있던 제작자 이태원 씨가 “임 감독, 이제 전국 관객 1,000만 명짜리 흥행영화도 만들어야지”라고 했다.)

“편안하게 영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임 감독의 말이 각별한 의미로 들렸다. 기자가 끝으로 “앞으론 아주 재미있는 영화, 오락성 있는 영화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감독은 이렇게 답했다.

“글쎄 내가 해봤으니까. 언제 한번 하기는 해야죠. 하고 싶어요 나도. 왜 그러냐면 내가 놀던 땅이 그런 땅인데. 내가 우리 이태원 사장 때문에라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춘향전> <취화선>으로 제작자에게 큰돈을 벌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뜻하는 듯) 그런데 재미있는 영화를 찍더라도 어떻게 하면 할리우드나 홍콩 오락영화와 차별되는 영화를 만들까, 전혀 다른 우리 색깔로 확실하게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성 높은 영화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빛깔로, 기왕이면 격조 높게 해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선 그 길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무슨 대담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쨌면 1,000만 명 동원할 흥행감독이 되기는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큰 히트를 하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볍고 알파한 감각까지도 담아내야 하는데 나로선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에요.” 🌈

임권택 감독 주요 작품과 경력

1981년 <만다라>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1985년 <길소뜸>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1987년 <씨발이>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1988년 <아다다> 몬트리올 영화제 여우주연상
1989년 <아제아제 비라아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
1992년 <서편제> 상하이 영화제 감독 · 여우주연상
1994년 <태백산맥>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1997년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 수상
1998년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구로자와 상 수상
2000년 <춘향전>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